

月波 鄭時林의 生涯와 詩文學 研究*

金貴錫**

〈차 례〉

1. 머리말
2. 학문과 종유
3. 시의 양상과 성정
4. 맺음말

<국문초록>

월파 정시림은 조선조 말 호남 사림의 중요한 위치에 선 문장가요 학자이다. 그는 노사 기정진의 고족제자로서 시서예악을 학문의 토양으로 삼고 공맹정주를 학문의 사표로 본받아 문풍교화와 전통윤리교육의 진흥에 헌신하였다. 또 그는 경술의 국치를 당해 조선신민으로서 지조와 절의를 꺾이지 않았던 의인이기도 하다. 월파는 글재주가 뛰어난 문사에 앞서 경전과 도의에 밝았으며, 학문적 사유 외에도 문학에 대한 열정과 낭만이 그의 시편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 그의 문학은 자연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는 물심일여의 자연친화적 성정과 함께 불의가 앞서는 시대에 방외의 객을 자처하며 세상을 초탈하고자 하는 정신세계를 그의 시편에 담고 있다. 월파는 면암 최익현, 송사 기우만, 후운 정예산, 일신 정의립 등 경기, 영·호남의 수많은 문인, 학자들과 교류하였으며 一時의 선비들과 종유는 명분과 대의가 상실된 시대를 살아가는 월파의 삶에 있어 정통학문을 수호하고 시대를 소통하고 울분을 치유하는 큰 의미를 갖게 된다. 월파는 경학을 증시하는 도학자였지만 그의 시에는 자연을 통하여 성정을 도야하고 진실한 인간적 삶을 추구하려는 순수

* 이 논문은 2008학년도 동신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동신대학교

한 정신세계가 농축되어 있다.

핵심어 : 호남사림, 문풍교화, 물심일여, 자연친화, 초탈, 종유, 정신세계

1. 머리말

鄭時林(1839~1912)의 자는 伯彥이며, 호는 月波이다. 본관은 光山이다. 그는 현종 6년(1839) 전남 보성 옥암면 노산리에서 부 漢彩와 모 坡州廉氏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의 가계는 고려조에서 門下贊成事를 지낸 鄭巨扈를 비조로 대대로 문관을 배출해오다가, 조선조 명종시절에 直提學을 지낸 12대조 鄭仁寬이 奇高峯과 道義로 교유하고 남도의 수많은 선비와 從遊함으로서 문호가 번창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후 선조들로부터 父에 이르기까지 특별한 관직이나 행적을 보이고 있지 않은데서 단순 평범한 가문으로 지내온 것 같다.

살던 집에 달이 떨어지는 모친의 태몽을 얻고 태어난 월파는 천품이 총명하고 차분하였다. 어려서 겨우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에는 부친 學生公이 도마를 가리키며 묻자 ‘俎’字로 대답하고, 목기를 가리키며 묻자 ‘豆’字로 대답하고 닭을 가리켜 묻고 치마를 가리켜 물을 때도 또한 그렇게 대답했다.¹⁾ 이는 글을 배우기 전에 스스로 알았던 것이니, 유년시절의 총명한 재능이 번뜩이는 대목이다. 그러나 월파는 8세에 천연두를 앓아 왼쪽 눈을 못 보게 되는 불운을 겪었고 10여세 때는 가산이 빈곤하여 고모(廉氏婦)에 맡겨져 양육되었다.

월파는 뉘그러한 마음을 마련하여 자신을 보살펴 준 고모를 두고 그 여가에 당시 이웃마을에서 講學하던 梅菊堂 廉相龍에게 글을 배웠는데 여러 아이들과

1) 『國譯月波集』(이하 『月波集』), 鄭月波時林先生의 事實, 756쪽.

장난을 하지 않고 시간을 아껴 글 읽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러나 너무 가난하여 책을 구해볼 수 없으므로 이를 안타까이 여긴 부친 學生公이 마을 사람들과 契를 맺어 經史와 諸子書를 사서 두고 순서에 따라 공부할 수 있도록 했다.²⁾

유년시절, 글방 스승의 가르침을 통해 학문의 기초를 닦았던 월파는 극빈한 생활 속에서도 학문탐구에 독실하여 사서육경은 물론, 천문, 율력, 산수, 역사 등 다방면에 능통했다. 그러던 월파에게 새로운 세계가 열린 것은 노사 기정진과의 만남이다. 그의 나이 30세 되던 해에 월파는 장성에서 講道하던 노사와 사제관계를 맺고 노사로부터 性理學의 要諦와 學問의 大方을 듣고 居敬하고 窮理하며 實踐함을 要法으로 삼아 학문에 매진하였다. 월파는 날마다 반드시 冠을 쓰고 띠를 두르고 꿇어 앉아 마음을 밝게 하고 공경히 책을 대하여 심한 병을 앓는 때가 아니면 결코 낮에 몸을 기대거나 눕지를 않았다. 특히 스승인 노사에게 ‘務實’이란 두 글자를 받았는데 월파의 생활이 一心一身으로부터 萬事萬物에 이르기까지 모두 그 理를 연구하여 시원하게 터진 지경에 이르기를 求하니 立志의 높음과 見解의 정밀함 그리고 持身의 독실함과 處事의 합당함이 모두 務實로 행한 것이었다. 3)월파가 관직에 뜻을 두지 않고⁴⁾ 오로지 학문에 定向하고 講論에 힘쓰니 그 學名이 높아 원근의 학도들이 구름처럼 몰려왔다.

월파가 살았던 조선조말 일제 강점기는 누구나 궁핍하고 암울한 힘든 시대였다. 청렴한 생활로 후학에 힘쓰던 월파에게 어사 심동신이 ‘궁핍을 감내하고 옹졸한 처지를 지키며 경적을 연구한다’는 위로의 글과 함께 米肉을 보냈으나 월파는 편지로 사절하고 이를 받지 않았다. 월파는 경술년 國恥를 당해 일본이 주는 은사금을 물리치기 위해 당시 영주(고흥)로 피해 들어갔으나 은사금을 계속 거절한 죄로 다음해 가을 分遣所(일본헌병대)로

2) 『月波集』, 先府君阡表, 402쪽.

3) 『月波集』, 鄭月波時林先生の 事實, 757쪽.

4) 월파는 癸未년에 道伯 金聲根이 孝廉(효성과 청렴)으로 뽑아 천거했으나 이를 사양하고 관직에 나가지 않았다. 『月波集』, 758쪽.

압송되어 곤욕을 치르게 된다. 월파가 이에 계속 항거, 불복하고 마침내 飲藥自決하려 하니 일본헌병대는 어쩔 수 없이 월파를 방면했다.

월파가 74세 되던 임자년 봄에 돈이 또 나오자 월파는 이를 굳게 거절하고 대신 글을 써서 보여주기를 “本國의 未亡의 臣으로써 日本이 주는 돈을 받는다면 어찌 正名이라 할 수 있는가 … 이 돈을 주려는 번거로움을 중지하고 이 한오라기 같은 목숨을 끊어가라”⁵⁾하고 분을 이기지 못해 병이나 그 해 3월 숨을 거두었다.

월파가 교유한 인물로는 면암 최익현, 중암 김평묵, 송사 기우만, 일신 정의립, 노백헌 정재규, 후운 정예산 등 많은 문인 선비들이 있으며 그 門下에는 이교천, 염재업, 송기만, 김인규, 염재진 등 수많은 後學들이 그를 따랐다.

송사 기우만은 월파에 대해 “師道を 밝히고 西河⁶⁾의 백성으로 하여금 夫子를 의심하지 않게 하면서 우뚝 顏波의 砥柱⁷⁾가 되었다.”⁸⁾ 고 평했으며 월파의 제자 이교천은 “經學을 강의하고 禮를 익혀 土風이 크게 변화했으며, 우리 고을의 학자가 性理說을 얻어들을 수 있었던 것은 실로 공(월파)의 힘이다”⁹⁾라고 회고한 것에서 그가 제자들에게 끼친 영향이 얼마나 지대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월파의 유고집인 『月波集』은 原濶 五책과 續集 三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집은 월파가 타계한 다음 해인 1913년 염재업, 송기만, 김인규 등의 제자들에 의해 講習齋에서 간행되었다. 내용을 보면 漢詩 106수, 그리고 스승 노사 선생과 최익현, 기우만, 정의립 등 지우와 그리고 중친 및 제자들에게 보낸 162편의 書, 34편의 雜著가 있으며 이 외에 序, 記, 跋, 辭,

5) “國卽未忘之臣也 以未忘 之臣受日本賜金則豈可謂正名乎 … 停此賜金之頸斷此一縷之命”(『月波集』, 권3, 抵日憲兵所, 164쪽.)

6) 西河 : 孔子沒後에 子夏가 西河에서 살면서 그 곳 사람으로 하여금 子夏를 公子와 똑같은 사람으로 생각하게 하였다.

7) 砥柱 : 中國의 瞿塘이란 險流 가운데 우뚝 서 있는 岩石이니 혼탁한 세상 속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비유한 말.

8) 『月波集』, 序, 55쪽.

9) 『月波集』, 答問編跋, 748쪽.

上樑文, 銘, 墓表, 行狀, 事實, 傳 등의 다양한 글이 수록되어 있다. 이 중에서도 漢詩, 그리고 雜著의 「法化問答」, 「漫錄」, 「主理主氣說」 등의 저술은 經學과 性理學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보여주고 있다. 『月波續集』은 월파의 아들과 제자들이 1939년에 간행한 것으로 원집에 빠진 글과 원집의 글을 발췌한 것으로 내용과 체제는 원집과 같다. 그리고 『월파집』과 『월파속집』을 한권으로 묶은 『국역월파집』이 1998년에 한글로 번역, 간행되어 월파의 글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그러나 월파의 사후 97년, 거의 한세기에 가까운 세월이 흘렀지만 월파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상태이다. 최근에 이 고장 문인들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호남학의 관심도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호남의 중견 문인이요, 남도의 걸출한 師表라 할 수 있는 월파 정시림에 대한 연구 역시 호남문인을 폭넓게 조명하는데 꼭 필요한 일이라 여겨진다. 본고는 월파연구의 조그마한 단초를 마련한다는 의미에서 그 생애와 학문 그리고 시문학을 살펴보고자 한다.

2. 學問과 從遊

월파에게 있어 스승 노사 기정진과의 만남은 그의 인생에 큰 의미를 갖게 했다. 월파가 매양 師門에 문안가고 질의하면 師門이 칭찬하고 기대하면서 ‘辛苦를 견뎌내고 本分の 일을 잊지 않으니 이래야 男兒의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널리 士友를 사귀고 鄉黨에 본보기가 되라’¹⁰⁾하며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학문에 분투하는 월파에게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훗날 노사의 손자 奇宇萬은 월파에 대해 “그 見識이 精明하고 문장이 훌륭하여 우뚝 先進이 됨으로써 老柏軒 鄭載圭, 日新 鄭義林 등 여러 동문들과 이름을 나란히 하고 서로 친근히 지내면서 실제적인 것에 힘을 기울여 스승

10) 『月波集』, 鄭月波時林先生의 事實, 757쪽.

의 가르침을 받아, 충실히 배워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서는 학문의 枝葉을 베어버리고 華를 거두고 實로 나갔다.”¹¹⁾ 고 『월파집』 서문에서 밝힌 것처럼 월파는 그의 학문에 있어 실제적이고 진실된 正論을 추구함으로써 노사의 학문적 유지를 받들고 스스로 후학 양성에 전력하였다.

월파는 기묘년(1879) 가을에 성리학의 전반을 다룬 三百經傳의 질의에 대한 답을 명쾌하게 문답체로 서술한 「法化問答」을 지어 蘆沙에게 質正하려 했으나 師門의 訥音으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法化問答」은 월파가 살던 봉덕 법화 마을 이름을 표제로 삼았다. 당시 法化村은 桐巢山 아래 法華寺란 사찰이 있어 그 절을 중심으로 해서 마을이 형성된 것에서 유래한 마을이름이다. 이 법화마을의 30년은 가난 속에서도 학문과 후학양성을 위해 힘써 온 월파의 인생에 있어 많은 의미를 갖게 한 곳이기도 하다. 월파에게 스승 노사와의 10년 세월은 더 없이 소중하였다. 어려울 때마다 늘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은 師門에 대한 생각은 항상 각별하였다. 이러한 스승의 죽음은 월파에게 아버이를 잃은 비통함 그 자체였다.

“時林이 복종하고 섬긴지 十二年이 되었는데 타고난 재질이 미련하여 썩은 나무마냥 조각할 수가 없었도다. 務實이란 大字와 편지로 가르치신 말씀 감당치 못할까 두렵지만 애써 알려주신 뜻을 감히 잊으오리까, 산이 무너지고 들보가 망가졌으니 心肝이 땅에 떨어지도다. 生時에는 榮이웁더니 작고하여 슬프도다. 눈물이 쏟아져서 두 뺨을 타고 내린다. 병환시에 모시지도 못하고 奔哭도 때를 어겨 마지막의 遺訓을 끝내 듣지 못하였도다. 길고 긴 이恨이여! 닳는 듯 타는 듯하다.”¹²⁾

월파는 노사를 중심으로 그의 師門에서 많은 문인, 유학자들과 교류하였다. 詩作的 酬答과 從遊를 통해 시대와 소통하고 학문을 論했으며, 자연을 노래하는 등 많은 교감을 나누었다. 신묘년(1891) 가을에는 월파를 비

11) 『月波集』, 序, 55쪽.

12) “詩林服事一有二年 質性愚朽木難 雕務實大字書尺教條惟恐 不堪敢 忘勤意山頽樑塊(槐)心肝墮(墮)地生榮死哀 淚泗交頤未 參執燭奔哭違時淵氷遺訓竟莫得 聞悠悠此恨如 如焚”(『月波集』, 祭蘆沙先生文, 366~367쪽.)

롯 정의림, 정창림, 정재규, 최숙민, 정예산, 김현옥 등 영·호남의 노사사문의 제자 50여명이 전라도와 경상도의 거리가 같은 지리산 鍾山에 모여 스승 盧沙 奇先生의 道를 講明, 講論하는 등 ‘種山講會’를 열어 그 유대를 돈독히 하였다. 지리산 모임을 끝마치고 영남으로 떠나려는 정예산에게 율파는 그 석별의 아쉬움을 다음과 같이 토로하였다.

“내가 大兄과 貫鄉은 다르지만 性은 같고 進就한 바 학업은 비록 알지만 師門은 같으며, 언은바 소견은 비록 부족하지만 道는 같다. 同姓·同門·同道이니 행운이 이보다 더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居住하는 지방이 달라 아주 멀리 떨어져 있으니 停雲(思友詩)의 句와 唐棣(朋友相思의 詩)의 詩를 날마다 읊조리지 않을 때가 없고 붉은 칠을 같은 것에 그릇도 물든다는(朋友의 影響) 말을 생각하며 탄식을 일으키니 그 不幸이 또 어떠한가. 오늘날 자리를 같이하니 가히 宮商이 서로 주고받은 격이었으나 세상 인연이란 浮雲流水와 같아서 또한 이를 벗어날 수가 없다(작별을 말함). 다만 생각하건대 《이렇게 같이 노쇠함에 이르렀으니 다시 서로 이별할 때가 아니다》란 구절이 隱侯의 絶唱으로서 오늘의 情景을 매우 잘 그려냈다고 할 수 있다. 가만히 생각하면 相從한지 十數年에 玉처럼 서로 도움이 된 바가 있다. 내가 兄에게 圓코자하고 方코자함이 같지 않아 구름과 연못처럼 서로 판이하지만, 兄도 古人과 같은지 다른지 내가 감히 알 수가 없다. 나는 오늘의 兄과 같아지기를 원하지만 兄은 훗날에 古人과 같아지기를 바라는 바이다.¹³⁾

율파는 노사사문의 영남학자 정예산과 영·호남을 서로 왕래하는 등 講論 및 詩交를 통해 각별한 우의를 다져왔다. 그는 講會를 마치고 三山으로 떠나는 제자 염경안에게 보낸 글에서 이르기를 “나를 從遊한 사람을 보면 반드시 내가 일찍이 뵈었던 賢人和 君子를 들어서 말해주는 《우리 東國에 사는 자는 崔勉菴을 뵈지 않아서는 안 된다》고 했고 嶺南의 道에 가까이 있는 자는 《鄭艾山을 親近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고 本道에 사는 사람에게는 《奇松沙에게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중략) 勉庵을 보고 艾山을 親近히 하고 松沙를 배운다면 이것이 學者가 北斗星을 본

13) 『月波集』, 竹樹旅邸送艾山序, 258쪽.

것이 아니겠는가”¹⁴⁾ 라고 하여 최익현, 정예산, 기우만의 본받음을 견고히 할 것을 당부할 만큼 그 愛敬의 마음이 간곡했다. 월파는 임진년(1892) 7월에 순천 송광사에서 趙性家, 奇宇萬 등 師門의 文人들과 講論 및 詩交를 나누었으며 그 해 8월 안국, 염재업과 함께 경기 포천으로 가서 그간 편지로만 道義를 강마하던 면암 최익현을 만나는 등 월파가 중요한 바는 一時의 선비들이었으니 그가 사는 全羅道는 물론 영남, 경기 등 그 경계를 초월하였다.

월파는 村老와 學生들이 지은 講習齋에서 朱夫子의 影幀을 모셔놓고 朔望에 참배하면서 강학에 온 힘을 기울였다. 그 때 제자들과 나눴던 문답들이 「講習齋講錄篇」으로 엮여졌으며 이러한 性理說에 대한 문답과 강론은 제자들로 하여금 經學과 禮를 중시하는 士風을 형성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월파는 鄉校의 교육에도 큰 관심을 갖고 수시로 출입하며 유교의 경전을 가르치기도 했다. 그는 ‘寶城明倫堂重修上樑文’에서 “삼가 생각하오니 學校는 善을 먼저 하는 땅이요, 바로 聖賢을 모시는 宮이다. 禮樂詩書는 실로 吾道가 南北이 없는 것이요 … 이 훌륭한 지역의 밝고 아름다움을 돌아보았도다. 진실로 士大夫의 冀北이어서 사람들 중에는 훌륭한 선비가 많고, 백성의 풍속은 周南을 사모하여 집집마다 글소리가 들린다. 朴竹川이 남긴 운율은 陶山의 연원을 더듬게 하고 安隱峯이 남긴 기풍은 溪老의 正脈을 상상하게 한다. 어찌 홀로 地靈만 효험이 있어서 이겠는가 또한 教化의 功이라 할 수 있다. … 었드려 원하노니 上樑한 뒤에 文風을 더욱 펴고 教化를 오래 베풀며¹⁵⁾라고 하여 향교 교육에 대한 강한 기대를 나타내기도 했다.

14) “見從我遊者必舉吾所管承接至賢人君子謂之曰生吾東者不可不見崔勉庵隣嶺省者不可不親鄭艾山居本省者不可不學奇松沙…見勉庵親艾山學松沙則其非學者之見北斗乎”(『月波集』, 送廉敬安往三山序, 265쪽.)

15) “學校首善之地乃是聖賢貌象之宮禮樂詩書固無吾道之無南北本郡之撫循瞻效勝界之明麗固士夫之冀北入多矜珮鶩鳴慕風謠周南戶聞絃歌傳誦朴竹川之餘韻追得陶山的源安隱峯之風想望溪老正脈奚獨地靈之有效抑亦教化之爲功…伏願上樑之後文風益暢教雨永施”(『月波集』, 寶城明倫堂重修上樑文, 237쪽.)

3. 詩의 양상과 성정

월파는 성리학자이며 교육자이다. 이백순이 “선생의 학문은 道義를 우선으로 하고 글재주는 뒤로 하여 經傳의 뜻에 소상하고 理氣의 論에 명석했으며, 그 학도에게 권면하는 바는 모두가 몸소 행하고 마음으로 깨달은 뒤에 한 것이었으므로 배우는 사람들이 그 앞에서 일과를 차리고 나오면 모두가 심취하고 지성으로 감복하여 남에게 말하기를 鄭先生의 글을 해석하는 것은 마치 부드러운 밥을 씹어서 먹어주는 듯 하여 전혀 걸리는 데가 없으니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이는 그 통한 바가 깊고 넓어서이다.”¹⁶⁾ 라고 밝혔으니 월파는 글재주가 勝한 文士에 앞서 경전과 道義에 밝은 뛰어난 學者요 敎師이다. 그러나 이러한 월파에게도 학문적 사유 외에 가슴을 뜨겁게 하는 열정과 낭만이 있으니 그것이 곧 그의 시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월파는 106수의 한시작품을 비롯하여 162편의 書, 그 외 34편의 雜著등 여러 장르에 걸쳐 많은 글들을 남겼다.

월파는 그의 나이 55세 되던 해(1893)에 보성군 문덕면 동소산 아래 향리의 父老들과 학도들이 지은 講習齊에 朱夫子의 影幀을 모셔놓고 제자들과 함께 초하루, 보름으로 참배하면서 春秋로 講學을 했다. 그간 형편이 여의치 못해 화순, 고흥 등을 떠돌며 학생들을 가르쳤던 것에 비하면 거처와 강당이 마련된 강습제는 월파에게 큰 기쁨이 아닐 수 없었다.

林樊小大年	크고 작은 나무들 우거진 숲에 나무는 小年大年이요
講習詩書客	詩와 書를 강습하는 客들
此地堂廡成	이 땅에 서당이 이루어지니
相觀禮巖石	서로 보며 巖石에 禮를 갖추네

四時禮樂詩書教	四時의 가르침은 禮樂詩書요
五品君臣父子倫	五品の 倫紀는 君臣父子라!
高山流水文章氣	高山流水는 문장의 기운이요

16) 『月波集』, 이백순, 鄭月波先生講學碑文, 765쪽.

秋月春風賢聖心	秋月春風은 賢聖의 마음일세
黃券儼臨千古聖	黃券 속에 엄연히 千古의 聖이 臨하고
靑衿敬守一心天	靑衿은 공경히 一心의 千里를 지키도다
月滿千溪成太極	千溪에 가득한 달빛 太極을 이루었고
花開萬樹播眞香	일만그루 나무에는 꽃이 뿌린 맑은 향기를
乘月尋雲隨性命	달빛을 타고 구름을 찾으니 性命을 따름이요
蒔花載柳付經綸	꽃을 심고 버들을 심는 것으로 經綸을 삼는다.

〈講習齊原韻(併柱聯散句)〉 17)

조선조말 異端과 邪說이 正學을 驅逐하는 절박한 분위기 속에서 월파는 詩書禮樂을 학문의 토양으로 삼고 공맹정주를 학문의 사표로 본받아 진정한 학문을 이루고자 했다. 이 시는 老·少 없이 講習齊를 찾는 모든 이에게 진정한 학문을 가르치고자 했던 월파의 열정을 담고 있다. 특히 靑襟, 젊은 선비들이 經傳을 익혀 聖賢의 道를 따르고, 그것을 통해 마음을 공경히 하여 天理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靑出於藍을 기대하는 스승의 마음을 담고 있다.

실제로 강습제는 월파에게 있어 제자를 가르치는 서당이기도 하지만 그의 애정이 듬뿍 담긴 안식처이기도 했다. 그것은 강습제 주위의 산수배경이 뛰어나 월파로 하여금 늘 마음의 위안을 삼았던 곳이다. 월파는 강습제 뒤의 병풍처럼 둘러진 桐岳이며 왼쪽의 梅嶺, 그리고 앞에 자리한 鳳鳴書室, 또한 桐岳과 강습제 사이에 위치한 億千劫의 풍상에도 그 모습이 의연한 ‘禮石’이라 새겨진 큰 바위를 보면서 聖賢의 典禮와 父子·君臣의 禮를 實心으로 익히고 行하여 배우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서로 感化하기를 소망하곤 하였다.

此會年年每次時	이 會를 해마다 이 때에 하는데
梵宮夜色暮鐘知	梵宮(寺)에 밤빛 드니 종소리로 알린다.
欵逕客尋紅葉晚	기운 길에 나그네는 단풍빛을 찾는구나.
懸庵僧入白雲遲	높은 암자의 스님은 흰구름 속으로 들어가네.

17) 『月波集』, 59쪽.

座圓揖讓高襟合	좌석이 원만하니揖讓하는 높은 선비들 모였고
講罷修齊秘義奇	修身, 齊家 강론하니 깊은 뜻이 奇異하다.
明日凌虛橋上路	내일은 凌虛橋 위의 길에서
征鞭爲贈菊花枝	지나는 이에게 국화가지로 깎여 주리라.

<松廣寺行飲禮>18)

이 시는 1892년 (54세)에 쓴 것으로 스승 노사의 師門인 趙月臯, 奇松沙 등 50여명의 文客들이 해마다 순천 송광사에 모여 노사의 뜻을 기리고 講論하며 詩交를 나누는 감회를 표현한 시이다. 월파에게 이러한 講會는 원근의 交友들을 한 자리에서 맞고 그들의 學問的 識見과 世事的 情談을 나누는 큰 즐거움이 아닐 수 없다. 한적한 山寺에서 밤늦도록 講論에 몰두하고 揖讓하는 높은 선비들의 모습에서 師門에 대한 기대와 감동을 은근하게 표현하고 있다.

선비가 학문을 쌓고 행실을 닦아 道가 밝아지고 德이 서게 되면 조정에 나가 그 포부를 펴 모두를 착하게 인도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면, 능력이 운명과 맞지 않아 진취해 볼 길이 없거나 세상이 어지러워 초야에 묻혀 지조를 지키고 세상에 쓰일 만한 학문을 하며 일생을 마치는 것도 좋은 일이다.19) 월파는 초야에서 후학양성과 학문에 그의 인생에 큰 의미를 두었다. 실제로 월파는 계미년 그의 나이 45세 때 道伯 金聲根에 의해 孝廉으로 조정에 천거되어 벼슬이 내려졌으나 이를 사양하고 나가지 않았다.

월파는 욕심을 적게 하는 것이 도에 들어가는 지름길임을 알고 빈한한 환경속에서도 道를 지키며 慾心을 억제하고 德스럽게 살아가는 것을 항상 수양의 근본으로 삼았었다. 월파는 배우고 가르치는 일 외에 틈틈이 여가를 내어 고장의 山水를 찾아 詩情을 펴며 自然을 관조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곤 하였다.

砵砵湍暴動青山 우르르 광광 여울 폭포 청산을 흔들고

18) 『月波集』, 권1, 12쪽.

19) 『月波集』, 이백순, 鄭月波先生講學碑文, 764쪽.

向晚行竿暫憩閑	늦어 가는데 가는 지팡이 잠시 멈춰 섰다.
石竇神龍今常在	돌구멍에 神龍은 지금도 있어
時時作雨送人間	때때로 비를 지어 인간에게 보낸다.
世人未識買名山	世人이 名山에 살 줄을 몰라서
空使眞區物外閒	공연히 眞區가 物外에 한가롭다.
龍石千年靈怪蹟	龍石의 千年 신령하고 괴이한 자취
歸來慎勿語塵間	돌아가 행여라도 塵間에 말하지 말라.

〈龍岩二首〉²⁰⁾

이 시는 월파가 보성읍에서 북쪽으로 三十里 거리나 되는 氷川 상류의 龍岩을 보고 지은 시다. 월파가 보성 읍에서 半年間 客居할 당시 마을 사람에게 勝地를 물어 찾아간 곳이 바로 龍岩이다. 이곳은 워낙 산골이 궁벽하여 인적이 거의 없고 또 소문도 크게 나지 않아 태고적 모습을 천 연 그대로 간직한 폭포 가운데에 위치한 바위이다. 월파가 마을 사람을 통해 들은 龍岩의 전설은 다음과 같다. 氷川 상류 폭포수 가운데 자리한 용암은 8개의 구멍이 나 있는데 그것은 곧 蛟龍의 굴집으로 그 아래는 깊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수심이 깊었다. 바위 아래 시퍼런 물은 龍宮으로서 龍이 승천하는 곳이며, 그 蛟龍의 상태에 따라 즉 살이 찌거나, 마르거나, 운기가 있거나, 건조한 것을 보며 마을 사람들은 일년 동안의 풍, 흉년, 가뭄 등을 점쳤다²¹⁾고 한다. 허망한 이야기로 사람을 미혹시키는 일을 경계하면서도 洞壑의 밝고 통활하고 맑은 기운, 바위골격의 파리하고 기이하게 깎여있는 모습, 품어대는 폭포수의 여울폭 등 눈앞에 벌어지는 奇絶의 장관에 월파는 마치 神이 處한 곳을 대한 듯했다. 조물주가 都會의 곁에 이곳을 두지 않고 궁벽하고 고요한 곳에 숨겨두는 것은 특이하고 기이한 경치로 하여금 오래도록 世人을 귀머고, 눈멀게 하는 것이다.²²⁾

20) 『月波集』, 13쪽.

21) 『月波集』, 龍岩記, 292쪽.

22) 『月波集』, 294쪽.

石逕欹斜草樹秋 돌길은 험하고 비탈져 초목은 가을인데
 名山此日訪仙家 名山에서 이 날에 仙家를 찾았다.
 蓬頭飛登峰頂立 봉오리 꼭대기에 날아오르듯 섰으니
 海鰲始覺戴瀛洲 海鰲가 瀛洲를 이고 있음을 비로소 알았다.

〈登八影山〉²³⁾

八影山은 瀛洲(지금의 고흥)에 있는 산이다. 월파는 八影山이 있는 영주와 인연이 많다. 월파가 거주하고 있는 보성과 근거리에 있는 영주는 월파가 한 때 형편이 어려워 講學을 했던 곳이기도 하며, 또 경술년(1910) 國恥를 당해 倭虜의 恩謝金을 받지 않기 위해 피해들어 간 곳이기도 하다. 그래서 영주는 월파에게 있어 남다른 감회와 애정이 깊은 곳이다. 월파는 이 영주의 팔영산을 자주 올랐었다. 비록 오르는 길은 험하지만 그 곳에는 마치 仙家와 같은 중유하는 선비 金允明의 鰲岡書室이 있다. “允明은 斯文에 뜻이 있는 자로 그 글 읽는 바는 눈에 지나고 입을 지나 마음에서 運行하고 그 涵養하는 바, 눈 모습은 단정히 하고 氣 모습은 엄숙히 하고 얼굴 모습은 씩씩하게 하는 것이니, 이런 일들을 오래 오래 힘을 써 내 등위에 깊어지기를 마치 힘을 쓴 자라가 三山을 깊어지듯이 하는가?”²⁴⁾ 하며 仙家の 主人 允明이 큰 인물이 될 것임을 기대하고 있다. 영주는 三神山的 하나이다. 자라가 三山을 깊어지듯, 允明이 이미 자라등 위에 있으니, 앞일은 오직 영주산 정상에 서는 일 뿐이라는 것이다. 월파는 海鰲가 瀛洲를 이고 있듯이 그 영주의 정상에 선비 允明이 우뚝서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

龍山虎岳護英靈 대룡산 석호산이 英靈을 지켜
 洞壑開明氣肅清 洞壑이 트여 환하고 기운이 엄숙하여 맑다
 同我三人無盡趣 나와 같이 한 三人의 한없는 취미
 千年留作此江聲 천추에 남아서 이 강물 소리가 되게 하자.

〈與宋善一登薑樹磴〉²⁵⁾

23) 『月波集』, 5쪽.

24) 『月波集』, 鰲岡記, 307쪽.

보성 미력과 겸백 사이에 大龍과 石虎의 두 산이 남북으로 있고 亭子江이 이 龍虎의 두 산 사이를 흐르고 있다. 龍山은 웅장하게 누르고 있어 서러운 모습이 마치 꿈틀거리며 굽이쳐가는 형세이고, 虎岳은 우뚝 솟아 쭈그리고 엎드려 있는 모습이 강하고 사나운 기운이 감도는 형세이다. 龍虎岳 사이를 흐르는 亭子江邊에는 크고 작은 바위가 있어 선비의 놀이터로 제격이다. 월파가 제자 2인(宋善一, 安處中) 과 함께 이 곳에서 逍遙하면서 제자로 하여금 돌(磴) 위에 세 사람의 이름과 돌(磴) 이름을 짓고 이를 새기도록 하여 山水間의 즐거움을 오래도록 남기고자 하였다. 그런데 三人의 姓名外에 강가의 바위에 새긴 돌(磴) 이름이 薑樹磴이다. 이는 생강(生薑)이 나무에서 난다는 뜻으로 그 作名이 흥미롭다. 이러한 薑樹磴의 운치, 산수간의 즐거움을 오래도록 함께 나누려는 師弟間의 情이 龍虎岳 사이를 흐르는 亭子江邊을 배경으로 한껏 묻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晚興方外客	저녁에 흥취내는 方外の 객이여
中流鬱衿平	中流에서 답답한 가슴이 풀리누나.
江空寒月在	강은 비었는데 차가운 달이 있고
夜靜暮雲生	밤은 고요한데 저녁구름이 인다.
軸話游魚聽	시 읊는 소리는 고기가 듣고
舷歌宿鳥驚	벃노래에 잠든 새는 놀라서 깨는구나.
湖山無盡景	湖山의 풍경은 한량없어
付與一壺傾	한병 술 기울이며 바라본다.

〈月夜泛舟桐江〉²⁶⁾

지리산이 보이는 사랑도(남해와 통영 사이의 섬)는 윗섬과 아랫섬이 마주 보고 있으며 그 사이로 桐江이 흐르고 있다. 동강은 두 섬 사이에 있는 협곡으로 오동나무처럼 푸르고 강처럼 생겼다 하여 桐江이라 이름하였다. 노사 사문의 영, 호남 학자들이 양 지역에서 가까운 지리산 중산에 모여 講論과 詩交를 나누고 그것을 파할 때면 월파는 항상 남해의 승경인

25) 『月波集』, 5쪽.

26) 『月波集』, 12쪽.

이 동강을 즐겨 찾았다.

이 시는 시적 화자가 스스로 客이 되어 어두운 桐江 위에 호젓이 배를 띄우고 구름과 달을 벗삼아, 遺舟吟詠 하는데서 마치 한 폭의 풍경을 보는 듯한 회화적 특성이 돋보인 시이다. 어쩌면 월파는 이 시에서 보듯 世事를 다 잊어버린, 아니 다 잊고 싶은 方外의 客을 스스로 자처했는지도 모른다. 그저 떠가는 배에 몸을 맡겨 한 병의 술을 기울이면서 湖山의 풍경에 마냥 취하고자 했는지 모른다. 異端과 邪說이 正學을 驅逐하고 正義보다 不義가 앞서는 현실에 타협을 모르는 월파로서는 당연히 세상에서 소외된 方外의 客이 될 수밖에 없다. 어사 심동신의 도움도, 道伯 김성근의 베풀친거도 모두 뿌리치고 극한의 환경에서도 학자의 道義를 지키고자 했던 월파는 이 桐江의 뱃놀이를 통해 잠시나마 세상을 초탈하고자 했을 것이다.

大名北斗星辰仰	大名은 북두의 별처럼 우리르는데
正脈華西道德高	華西의 正脈이니 道德이 높네.
東土蒼生加額望	東土의 창생들이 이마에 손을 얹고 바라보노니
何時更得出林阜	언제 다시 숲에서 나가시려나?

〈曾勉庵崔尙書(益鉉) >27)

월파가 임진년(1892) 8월 그의 나이 54세 때 경기 포천에서 면암을 처음 만나게 되었다.²⁸⁾ 면암은 華西 李恒老의 高足弟子로서 月波와는 6세 연상이다. 月波는 스승 奇蘆沙와 師承관계에서 勉庵과 交遊하게 되었고 10여년 가까이 서신 왕래를 통해 서로의 學問과 人格을 欽仰해 온 터였다. 월파는 면암에 대해 “天地의 正氣요, 春秋의 大義며, 千古의 綱常이요, 四海의 斗星이라. 聖賢의 학문이요, 호걸의 자질로써 正道를 붙잡고 사교를 배척하며 중화를 높이고 오랑캐를 물리치니 厲鬼가 된 張中丞이요 몸을 다 바친 諸葛孔明이라”²⁹⁾ 고 그의 祭文에서 숭회하였듯이 면암을 북

27) 『月波集』, 12쪽.

28) “所行年五十四始踰本省界域得一瞻拜於門”(『月波集』, 上崔參判, 214쪽.)

두의 별처럼 四海를 밝히는 큰 인물로 숭앙하고 스승 華西의 정통학맥을 이루는 道德 높은 人格者로 頌揚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면암이 20년 가까이 초야에 묻혀 세상에 나오지 않고 있는 현실이 월파에게는 큰 아픔이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명분과 대의가 상실된 시대에서 면암의 우국애민의 충절이 언제 광명한 시대를 이끌어 四海를 밝혀주게 될 지 이를 소망하고 기대하는 월파의 간절한 마음이 짙게 묻어나고 있다.

월파는 도학자이며 교육자이다. 그는 성리학의 유교적 이념을 모든 삶의 가치기준으로 삼았다. 특히 禮, 德은 무엇보다 강조한 바로 모든 이에게 교화되어야 할 실천궁행의 큰 덕목으로 여겼다. 살피면 바와 같이 월파의 시 또한 이러한 이념을 형상화 하는데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그것은 시에 나타난 문학적 진실이 삶의 현실과 조금도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월파는 비록 글씨주는 뒤로 하고 경학을 중시한 도학자였지만 그의 시에는 자연을 통하여 성정을 陶冶하고 진실한 인간적 삶을 추구하려는 시인 자신의 순수한 정신세계가 진솔하게 담겨있다.

4. 맺음말

月波 鄭時林은 헌종 6년(1839) 보성에서 출생하여 1912년에 향년 74세의 일기로 생을 마감한 조선조말 호남사림의 중요한 위치에 선 학자요 문장가이다. 그는 奇蘆沙의 高足弟子로서 스승으로부터 性理學의 要諦와 學問의 大方을 듣고 居敬하고 窮理하며 實踐함을 강구하며 평생을 학문과 後學양성에 힘써왔다. 그는 異端과 邪說이 正學을 驅逐하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정통유학의 詩書禮樂을 學問의 토양으로 삼고 孔孟程朱를 學問의

29) “天地正氣春秋大義千古綱常四海星斗聖賢之學豪傑之資扶正斥邪尊華夷爲厲中丞盡孔明鬼神”(『月波集』, 祭勉庵崔尙書文, 367쪽.)

師表로 본받아 새로운 학문의 진작을 역설하여 文風의 敎化와 전통윤리교육의 진흥에 헌신하였다. 또한 월파는 경술(1910)의 國恥를 당해 倭虜의 恩謝金을 거절한 죄로 일본 헌병대에 수차례 압송되어 곤욕을 당하면서도 朝鮮臣民으로서의 志操와 忠節을 꺾이지 않았다. 결국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병이나 1912년 亡國의 淪分과 恨을 품은 채 세상을 떠났다.

월파는 면암 최익현, 중암 김평묵, 송사 기우만, 일신 정의립, 노백헌, 정재규, 후윤 정예산 등 많은 문인 학자들과 교유하였으며 이교천, 염재업, 송기만, 김인규, 염재진 등 수많은 후학들이 그를 따랐다.

월파는 글재주가 뛰어난 文士에 앞서 經傳과 道義에 더 밝은 학자로 알려졌다. 그러나 그의 학문적 사유 외에 문학에 대한 열정과 낭만 등이 그의 시편 곳곳에서 발견된다. 월파는 고장의 산수를 찾아 自然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는 物心一如의 自然親和的 性情을 그의 詩에 담았으며, 不義가 앞서는 시대에 소외된 方外의 客을 자처하며 세상을 초탈하고자 했던 그의 정신세계 또한 시편 여러곳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월파에게 있어 벗과의 從遊는 그의 삶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는 제자들에게 “나를 중유한 사람을 보면 내가 일찍이 뵈었던 賢人和 君子를 들어서 勉庵을 보고 艾山을 親近히 하고 松沙를 배운다면 이것이 學者가 北斗星을 본 것이 아니겠는가” 하였듯이 면암 최익현, 후윤 정예산, 송사 기우만 등 경기, 영·호남의 여러 知友들과 각별한 우의를 다져왔다.

一時의 선비들과의 從遊는 명분과 대의가 상실된 시대를 살아가는 월파의 삶에 있어 정통학문을 수호하고 時代를 소통하고 淪分을 치유하는 큰 의미를 갖는다. 월파는 경학을 중시하는 도학자였지만 그의 시에는 자연을 통하여 성정을 陶冶하고 진실한 인간적 삶을 추구하려는 순수한 정신세계가 농축되어 있다. 월파 정시림에 대한 연구는 이제 그 시작단계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가 미흡하지만 월파 시문학 연구에 조그만 단초가 되어 앞으로 괄목할 만한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寶城鄉校, 『國譯月波集』, 1998.

寶城文學會, 『寶城文學大幹』, 1997.

전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全南圈文集解題』, 1997.

최영성, 『한국유학사상사』, 아세아문화사, 1995.

투고일 : 2009년 12월 23일, 심사 : 2010년 1월 11일~25일, 게재확정 : 2010년 2월 1일

<Abstarct>

A Study of Wolfa Jung sirim and poetry

Kim, Kuy-suck

This paper has been considered about Wolfa Jung sirim(1839~1912)'s academic traditions and his social intercourse, noting the changes taking place in the bottom of the 19th century world of letters.

That, as part of this working, was because Wolfa was not only the most prominent figure in the practical and realistic literary world of the day but also a significant man having established such a historical beachhead as brings about the proper understanding on the approach to literature.

His thought and literature has been handed down through Wolfajib written by his descendants without being taken any notice of by the history of literature and reaserch. And he was no more than a country man getting along without making his debut in literart circles. he is Honam sungrihakja.

His thought and literature, however, has started to get generally known to the academic world since 1913s. the printed Wolfajib, reflecting the charavteristic of contemporary literary works, and showing the social changes, the social status of writer, the awareness of self-experience and the changes of sensitivity, the reconstruction of literature.

Key words : Wolfa(月波), Wolfajib(月波集), Education(教育), Honam Sungrihakja
(湖南性理學者)